

‘도가니’ 인화학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되나

TF팀, 전시관·치유공간 등 활용방안 3가지로 가다

지난 2011년 문을 닫은 후 수년간 제자리 걸음인 옛 인화학교 부지 활용 방안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옛 인화학교 부지활용 TF 회의를 열고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TF에는 시청과 시의회, 교육청, 대학교수, 장애인 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그동안 현장 답사 거지고 수 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간주려졌다. 해당 부지에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짓자

는 방안이 첫째다. 이 학교 일부 교직원들이 청각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꾼 현장의 역사성을 살려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 시민들이 머물고 쉬 수 있는 치유와 수련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특정 공간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견이다. 다수 전문가들이 무게를 둔 공간활용방안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현재 일부 공간이 종교단체에

서 운영중인 직업재활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확대, 장애우들의 삶터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다. 옛 인화학교 학생들로 해당 공간에서 공부와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재활 교육을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부지를 특정 공간으로 활용하더라도 일부 인화학교 학생들의 희생과 장애인 인권을 상징하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절충형 제안도 나왔다. 인화학교는 이 학교 일부 교직원의 청각 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결국 학교와 법인이 폐쇄됐다. 학교는 2011년 먼저 문을 닫았으나 법인 청산절차는 퇴직금 소송 등이 맞물리면서 2014년 말 말전처리

됐다. 학교부지 1만9843㎡, 8705㎡에 달하는 건물은 지자체(광주시) 소유로 귀속됐다. 인화학교 사건은 이 학교 일부 교직원들이 청각 장애 여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고 ‘영화 도가니’로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반향이 적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화학교는 단순히 문을 닫은 학교가 아니라 역사성을 간직한 상징적 공간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활용방안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시민, 전문가, 인화학교 동문 등 각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광주시민들이 공감하는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꾸러기들이 꽃보다 아름다워 7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봄꽃축제 어린이 재롱잔치’에서 꼬마박사 어린이집 원생들이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멋진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북구청 광장에서는 이날 말까지 화사한 봄꽃을 만날 수 있다. /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전남 시·군 불법어업 단속 ‘뒷짐’

연간 단속 건수 5건 미만

전남 일선 시·군이 불법어업 행위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다. 표를 의식한 단체장이 미적거리자 전남도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경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이 불법어업 단속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해경을 제외하고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모두 397건이다. 이 가운데 어업지도선 4척을 보유한 전남도가 334건을, 14척을 보유한 일선 시·군은 63건을 적발했다. 지난 2014년 227건 중 전남도가 256건, 시·군 21건, 2013년에도 291건 가운데 267건은 전남도, 24건은 시·군이 단속했다. 일선 시·군이 연간 5건 미

만을 단속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행정구역 내에 바다가 있는 16개 시·군 중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하는 어업지도계가 있는 곳은 여수시가 유일하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단속 공무원이 배치돼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해야 하는데도 일선 시·군은 단체장 표를 의식해서인지 거의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무허가 통발, 무허가 호랑, 삼중자망 등을 설치했다가 7건을 단속당한 여수 읍촌 어민들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 불법어업 단속 완화를 요구하는 집회 신고를 했다. /윤현석기자chadoll

“세월호 2주기 추모의 마음 모아 주세요”

광주시민상주모임, 17일까지 추모 주간 행사 다채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추모기간 선포(7~16일)와 함께 시민들에게 추모행사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주의광주행동과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은 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 방해를 중단하고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조위가 특별법이 보장한 것처럼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과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약속했

지만 인양과정과 절차는 불투명하고 가족의 참여는 차단당했다”며 “정부는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보존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상주모임 등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를 연다. 9일 오후 1시 충장로 광주우체국에서 ‘세월호 2주기 기억과 약속, 행동’ 행사를 열고, 16일 오후 3시에는 5·18민주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대회’를 진행한다. 영화 상영(14·15일)과 북콘서트(23일)도 예정돼 있다. 문의 062-222-132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0
해질녘 18:59
달맞이 06:43
달질 19:58

포근한 주말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9/23	보성	맑음	7/23
목포	맑음	9/18	순천	맑음	11/24
여수	맑음	11/19	영광	맑음	7/20
나주	맑음	7/23	진도	맑음	8/18
완도	맑음	10/21	전주	맑음	8/20
구례	맑음	7/24	군산	맑음	6/16
강진	맑음	7/21	남원	맑음	7/21
해남	맑음	6/20	홍산도	맑음	7/15
장성	맑음	7/22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북서	0.5~1.0	북서	0.5~1.0
남해	남바다	북서	0.5~1.5	북서	0.5~1.5
제주	남해	북서	0.5~1.5	서	0.5~1.0
	서부	북서	1.5~2.5	서	1.0~2.0
제주	남해	북서	1.5~2.5	북서	1.0~2.0
	서부	북서	1.5~2.5	북서	1.0~2.0

생활지수

주요	주의
식중독	보통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보통

물때

목표	밀물	썰물
	02:38	07:55
	14:58	20:13
여수	09:46	03:25
	22:09	15:45

주간 날씨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	☀	☀	☀	☀	☀	☀
9/24	9/23	9/21	10/21	11/21	12/20	10/21

광주교육청, 무단결석 아동 관리 컨설팅 지원

광주시교육청은 7일 전담기구를 구성,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및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광주시와 5개 구청, 가정법원, 광주지방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참여한 전담기구를 구성, 학생 관리 및 지원

활동을 벌이는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교육지원청도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월 1회 이상 학생 소재를 확인하는 등 관리 상황을 시교육청에 보고하고 일선 초·중·고교는 ‘의무교육 학생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교총 “윤리규정 제정...연구대회 미리 재발 방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7일 전남 일선 학교 교장·교감들의 표절 연구 보고서 관련, ‘교육연구대회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규정 제정 ▲검사기능 강화 ▲표절자 3

년간 연구대회 출품 금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교총은 “올해 60회를 맞이하는 현장 연구대회 권위와 공신력에 훼손을 가져오게 했다”고 사과한 뒤 혁신적 재발방지책을 마련, 현장연구대회의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복회, 11일 수피아여고서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광복회 광주·전남지부는 오는 11일 오전 광주 3·1독립운동의 근원지인 수피아여고 강당에서 제 9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근현대사학회 장인 박결순 총북대 사학과 교수가 ‘독립운동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한다.

전남에서는 임시정부 국방장관을 역임한 일각 김 철 선생의 출생지인 함평군 학다리고등학교 무학관에서 기념식이 진행된다. 광복회는 기념일이 총선일이라 대한민국 임시 헌장 공포일인 11일로 앞당겨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술산 여성 희망 33~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새 주인을 찾습니다 팬션 매매

아름다운 팬션 코트에 영입중

- 70~80년된 벚꽃,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 잡종지 15,688㎡ (4746평) 전 1,985㎡ (600평) 총 5,346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200m 도로접 (매인 3000평 분할가능)
-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문명I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금액은 현지답사후 상의 결정 **H. 010-3119-6952**